

勞 動 經 濟 論 集
 第24卷 (1), 2001.3, pp. 253~283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근래의 상용직 비중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류재우** · 김재홍***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는 근래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에 대하여 동태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젊은 층의 경우는 주로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장·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상용직으로부터의 이탈확률 증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과 여타 노동력 상태간의 '단절' 현상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상용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임시직의 역할이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상태간 이행확률의 변화가 상용직 비중의 변화에 미친 효과의 분석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상용직 비중 증가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의 상용직 비중 감소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증가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 주제어: 상용직, 비정규직, 고용구조, 이행확률

투고일: 2001년 1월 8일, 심사일: 1월 15일, 심사완료일: 2월 26일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최경수 박사와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jryoo@kookmin.ac.kr)

***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I. 서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래에 고용구조와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실업이 급증하여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된 바 있으며, 그만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취업자의 구성이라든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한 예로,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1990년경을 기점으로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류재우·최호영, 1999; 2000).

이와 함께 최근에 보다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임금근로자(또는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혹은 그것의 반대 측면에서의 비상용직/비정규직 비중의 증가—이다.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 감소는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컨대 취업자 전체 중에서의 비중은 1998년 5월 현재 32.2%에 이르렀으나 1년 후에는 29.3%가 되어 2.9%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여 1999년에는 처음으로 50%를 하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노동수요의 감소가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에 집중된 점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사업에 동원된 근로자가 대부분 일용직이라는 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음이 분명하다.¹⁾

그러나 아마도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환경의 변동성 증대일 것이다. 경제개방 등과 함께 기업들은 더욱 심한 국제경쟁에 노출되고 보다 큰 수요변동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핵심노동자만을 상용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주변 노동자들은 임시 및 일용직 형태로 유지하는 생존전략을 채택하게끔 하였을 수가 있는 것이다(Abraham, 1990). 또 다른 가능성은 고용관행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고비용 등을 감안, 신규 직원을 계약직·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선발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생산성을 관찰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1) 1999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가인원은 일일 평균으로 약 38만 명에 달했는데(노동부의 『'99 노동백서』(2000)에서 추산), 이는 임금노동자의 약 0.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늘어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급속히 진전된 컴퓨터화, 디지털화, 소프트화 등으로 인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외주, 하청을 포함하는 네트워크형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을 상용직으로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상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경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숙련과 관련한 노동수요의 변화, 고용관행에 있어서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상용직 비중 변화의 기본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 집단의 비중이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안정성(job stability)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 또한 근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실업구제 또는 고용확대로부터 고용의 질에 있어서의 변화(악화)로 옮겨가고 있는 바, 상용직 비중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경수(1999)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경제위기 기간중의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상용직 비중의 감소를 포함하는 고용구조상의 변화는 숙련수준별로 하위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상위의 노동수요는 증가한 결과라는 점을 보였다. 한준·장지연(2000)은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류재우(2000a)는 비상용직으로부터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의 감소보다는 상용직으로부터의 이탈확률의 증대가 근래의 상용직의 감소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였다.

기존 연구가 대체로 횡단면자료나 회고적 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용직 비중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 양태를 분석한 다음 그 같은 비중 변화 중의 얼마만큼이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진입 및 퇴출 확률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그 위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에도 답하고자 한다. 상용직 비중 변화의 얼마만큼이 기존의 상용직 노동자들이 동일 직무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계약상의 지위만

2) 미국의 경우 직장안정성의 변화는 근래의 커다란 관심사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예컨대, Berman et al., 1994; Jaeger et al., 1999).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근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한 논의로는 금재호·준준모(2000)를 참조.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인가? 근래의 상용직 비중의 변화는 연령별 진입 및 퇴출 패턴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최근의 상용직 비중축소 과정에서 개인의 근로경력(work history) 및 여타의 개인적 배경 등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자들이 주로 상용직에서 퇴출되었는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소개하며, 제Ⅲ장에서는 상용직 종사자의 인적 특성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의 패턴을 분석하며 제Ⅴ장에서는 유량 측면에서 상용직 비중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그 하나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차년도(1998년)와 2차년도(1999년) 자료이다. 이 자료는 주로 최근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종사상 지위 또는 노동력 상태간 유동의 양태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른 하나는 198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하 '경찰' 원자료로 부름)인데, 이 자료는 패널데이터로 전환된 다음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 패턴의 보다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경찰' 자료를 패널화하는 작업에는 김대일(1997), 류재우·최호영(2000)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계산상의 편의와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기간이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만들어졌다. 먼저, '연간패널'은 이웃하는 두 개 연도의 10월 자료를 연결한 것이다. 둘째로 '월간패널'은 이웃하는 2개월의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계산의 편의상 각 연도에 대해 3~4월, 4~5월, 9~10월, 10~11월 자료를 연결한 4개의 패널을 만들었다. 노동력 유동에 관한 '연평균' 값들은 이 월간패널로부터 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2개월 연속패널'은 각년도 1~12월까지의 연속되는 기간에 걸친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남자에게로 한정하였다. 또한 우리의 주된 관심이 근대부문-비농업부문에서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있으므로 해서 비농업부문 종사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력 유동의 분석에서는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간의 유동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바, 이들 비취업자를 농업-비

농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소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상을 비농가로 한정하였다.³⁾

Ⅲ. 상용직 종사자의 특성과 그 변화

1. 상용직의 범위 및 비중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상용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정의되며, 고용기간이 각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과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근래에는 임금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구분법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KLIPS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상용/비상용과 정규/비정규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비농가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표 1>을 통해서 보면, 정규직의 98.3%는 상용직이지만 상용직의 94.8%만이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즉 고용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개념이다. 아무튼 상용직의 대부분이 정규적인만큼, 상용직에 초점을 둔 이하의 논의는 정규직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또는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두 가지 자료로부

<표 1>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정규/비정규의 구분 (1998년, 비농가 남자)

(단위: 명, %)

	상 용	임 시	일 용	전 체
정 규	1,966 (94.8) (98.3)	23 (13.2) (1.1)	12 (5.0) (0.6)	2,001 (81.0) (100)
비정규	107 (5.2) (22.9)	151 (86.8) (32.3)	210 (95.0) (45.0)	468 (19.0) (100)
전 체	2,073 (100) (84.0)	174 (100) (7.0)	222 (100) (9.0)	2,469 (100)

주 : 첫 번째 괄호 안의 수치는 수직 합계가 100이며, 두 번째 괄호 안의 수치는 수평 합계가 100임.
자료 : KLIPS.

3) '경찰' 패널 구축 과정에서 표본탈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의 대표성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류재우·최호영(2000)을 참조.

터 계산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KLIPS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인데, 이는 52%에 불과한 '경활' 수치의 1.6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자료 간의 차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큰데 KLIPS에서의 수치는 '경활'의 그것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전체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두 자료간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활'과 KLIPS에서의 상용직 비중의 차이는 일용직 비중의 차이보다는 임시직의 비중의 차이와 더 관련되어 있다. 이는 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상용직과 임시직의 구분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⁴⁾

두 자료에서 동일한 '상용직'의 개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 같은 커다란 차이를 자료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일 종사상 지위 분류와 관련한 편의(bias)가 존재하는 쪽이 '경활'일 경우, 그것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관련한 최근의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과장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경활'은 상용직 비중의 중장기적인 추세 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므로, 설사 편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편의가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기만 해왔다면 분석상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표 2>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

자료구분(연도)		KLIPS (1998)			'경활' (1998. 1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 노동자 중의 비중	전체	80.9 (100)	9.5 (100)	9.5 (100)	51.6 (100)	32.9 (100)	15.5 (100)
	남자	84.0 (65.9)	7.0 (47.2)	9.0 (60.3)	63.3 (75.8)	23.8 (44.6)	12.9 (51.4)
	여자	75.8 (34.0)	13.8 (52.9)	10.4 (39.7)	32.6 (24.2)	47.7 (55.4)	19.7 (48.0)
취업자 중의 비중	전체	54.0	6.4	6.3	34.9	22.3	10.5
	남자	57.3	4.8	6.1	43.8	16.5	8.9
	여자	48.6	8.9	6.6	21.3	31.1	12.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수직 합계가 100임.

자료: KLIPS 및 '경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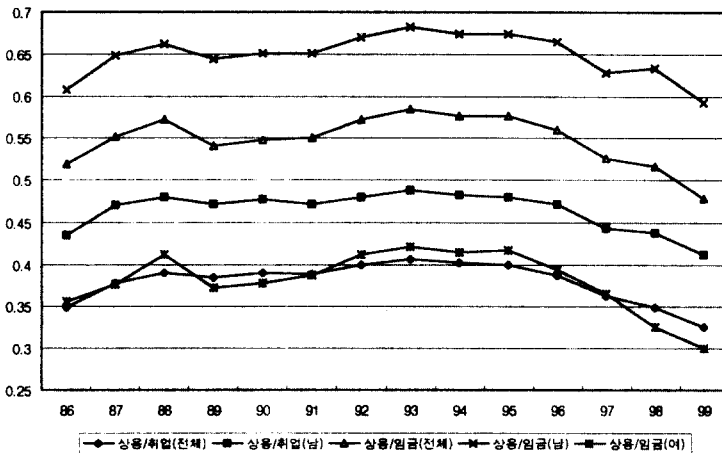
4) '경활' 조사에서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것을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성(2001)의 <표 2>를 보면 퇴직금, 연금, 각종 보험, 상여금 등의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상용직에서 배제할 경우 KLIPS에서의 상용직 비중이 '경활'에서의 그것과 거의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용직 종사자의 특성 및 그 변화

[그림 1]에는 '경찰' 자료로부터 계산된 상용직 종사자 비중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있어서의 약간의 기복을 제외하면 대체로 1993년까지의 상승, 1995까지의 상대적인 정체, 그 이후의 급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상용직의 비중을 자영업부문 종사자를 포함하는 취업자 전체 중에서의 비율로 정의하든 아니면 임금노동자 중의 비중으로 정의하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패턴은 거의 동일하며, 1990년대 후반의 하락이 좀더 두드러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용직 노동자의 상대 규모의 감소는 상용직 근로자의 절대수의 변화는 물론 임시·일용 노동자의 수 및 비중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남자 상용직의 경우, 절대수치는 1995년 또는 1996년에 정점에 도달한 다음 1997년에 큰 폭 감소하였으며 이어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그 수는 1993년경까지는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용직의 경우에는 정체 또는 미소한 상승이 1996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이후 급등세로 전환하였다. 결국 '경찰' 자료에 의할 때, 근래의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 감소는 1995~97년

(그림 1) 상용직 비중의 추이



자료 : '경찰' 원자료의 각년도 10월분.

기간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주로 임시직 노동자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그리고 1997~98년 기간에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표 3>을 통해 두 자료로부터 상용직의 인적 특성을 여타 임금근로자의 것과 비교하여 보자. 우선, 상용직 비중은 학력에 따라 증가하는데, '경활' 자료로부터 시간상의 변화를 보면 1995~99년 사이에 각 학력 모두에 있어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폭은 학력이 낮을수록 더 컸다. 또한 고졸 이하자의 경우 상용직 비중의 감소는 일용직의 비중 증가와 함께 진행된 반면, 고학력자의 경우 주로 임시직의 비중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임시직의 경우에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력으로 측정된 노동력의 질 면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는 동질화(assimilation)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⁵⁾

연령별 특성은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KLIPS에 비해 '경활'에서 모든 산업의 상용직 비중이 낮게 나타나지만 특히 건설업⁶⁾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에서의 격차가 더 크다. 직업별로는 '경활'에서의 상용직 비중은 서비스직 및 판매직 등에서 매우 낮아 KLIPS에서의 수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 및 노무직에서의 비중도 KLIPS에서 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다. 우선 '경활'에서의 상용직 비중이 과소 추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경활'이 주로 저학력-저연령-건설업·도소매업·서비스업-서비스직·판매직·생산직 직군에서의 상용직 비중을 과소 추정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직군은 대체로 저기능-저숙련 직군으로 이미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다른 한편, '경활'에서의 비중 추이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이들 저기능-저숙련 직군에서의 '탈상용직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용직 비중의 감소는 주로 이들 하위직군에서 상용직이 임

5) '경활'에 의한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986, 1990, 1995, 1999년도에 각각 12.0, 12.2, 12.6, 13.1년이었는데,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보다 각각 2.0, 1.8, 1.7, 1.6년,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4.0, 3.8, 3.7, 3.1년이 적었다.

6) 일용직의 대부분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활'에 의한 때, 1998의 경우 전체 일용직 근로자 중 84%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년 후 그 비율은 51%로 급감했는데. 이는 건설부문의 일용직이 매우 타격이 컸다는 점과 함께 다른 산업부문에서 일용직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표 3〉 임금노동자의 특성 요약 (비농가, 남자)

(단위: %)

		KLIPS			'경 활'					
		1998			1995. 10.			1999. 10.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학력	중졸 이하	65.0 (15.3)	12.7	22.3	43.1 (15.4)	25.7	31.2	31.0 (10.3)	32.9	36.1
	고졸	83.4 (45.8)	7.2	9.4	65.7 (47.6)	24.6	9.6	55.3 (44.3)	30.1	14.6
	초대졸	94.7 (9.5)	3.9	1.5	85.9 (7.8)	11.8	2.4	69.8 (9.0)	24.9	5.3
	대졸	96.2 (29.4)	3.3	0.5	93.7 (29.2)	5.6	0.7	86.0 (36.4)	12.0	1.9
연령	20~24	75.0 (4.6)	16.9	8.1	46.6 (5.8)	43.7	9.7	12.2 (2.8)	20.0	67.9
	25~29	89.5 (16.7)	7.3	3.1	68.5 (19.8)	26.4	5.1	40.8 (15.7)	27.5	31.7
	30~39	87.8 (39.0)	4.3	7.9	75.4 (40.0)	14.7	9.9	60.3 (40.2)	19.4	20.3
	40~49	84.1 (25.1)	5.9	10.0	71.7 (20.6)	11.4	16.9	57.5 (26.9)	13.1	29.5
	50~64	75.7 (14.6)	9.1	15.2	60.6 (13.8)	17.5	21.9	33.6 (14.4)	14.6	51.8
산업	제조업	93.5 (35.3)	3.9	2.6	80.2 (37.9)	17.9	1.8	70.0 (33.5)	23.7	6.3
	건설업	42.2 (7.2)	13.1	44.8	31.4 (8.8)	12.9	55.7	28.2 (7.2)	17.3	54.6
	도소매음식	86.5 (12.0)	9.3	4.3	49.5 (11.1)	45.6	5.0	37.7 (10.1)	50.2	12.2
	운수창고통신	91.4 (10.9)	5.8	2.9	83.6 (10.8)	14.0	2.4	76.4 (12.7)	18.0	5.6
	금융보험부동산	91.7 (14.7)	4.3	4.0	81.9 (11.9)	17.3	0.8	68.1 (14.8)	27.5	4.4
	사회및개인서비스	88.0 (19.9)	9.4	2.6	86.0 (19.6)	12.0	2.0	74.4 (21.7)	16.9	8.7
직종	관리직	100 (2.4)	0.0	0.0	99.0 (4.1)	1.0	0.0	96.6 (4.6)	3.4	0.0
	전문직	96.0 (34.9)	3.7	0.4	90.6 (27.8)	8.9	0.4	82.6 (33.9)	15.8	1.6
	사무직	95.6 (26.0)	3.9	0.5	91.0 (20.6)	8.7	0.3	83.1 (19.2)	14.6	2.3
	서비스 및 판매직	86.7 (8.3)	11.2	2.1	44.6 (4.8)	49.7	5.8	35.4 (4.9)	49.3	15.3
	생산 및 노무직	73.5 (28.5)	11.3	15.1	53.5 (42.7)	24.3	22.2	43.8 (37.4)	30.8	25.5

주 : 각 셀의 수치는 해당 셀에 속하는 임금노동자 중에서의 비중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범주별 분포임.
 자료 : KLIPS 및 '경 활' 원자료.

시·일용직으로 급속히 대체된 데 따른 것이 된다.

IV.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1. 진입 및 퇴출 확률의 변화 양상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진·출입 행태와 상용직 비중간의 관계는 이행확률 모형에 기초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노동력을 상용직/비상용직, 취업/비

취업 등의 상태로 구분한 다음 하나의 상태에서 단위기간 동안 다른 상태로 이행한 자의 수를 원래 상태에 있던 자의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한 노동자가 다른 상태로 이행하게될 확률(transition probability)로 해석한다. 이 경우,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비상용직 취업자가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 비취업자의 취업조건부 상용직 진입확률 등의 증가함수이면서 동시에 상용직 취업자가 퇴출할 확률의 감소함수가 된다.⁷⁾

<표 4>에는 '경활'의 월간패널로부터 구한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월간 이행확률'들이 나타나 있다. 먼저 진입률을 보자. 진입률은 비상용직 중에서 1개월 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자의 비율(진입률a) 및 상용직 근로자의 규모 대비 상용직 신규 진입자의 비율(진입률b)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어느 쪽의 정의를 따르든 진입률은 별다른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1991년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착실하게 하락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률의 감소의 원인은 시기적으로 서로 달랐다. 임시직으로부터의 진입률의 경우 5% 정도에서

<표 4>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월간 이행확률의 추이 (비농가, 남자)

(단위: %)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							상용직으로부터의 퇴출확률						
	자영 부문	임시직	일용직	신규 실업	전직 실업	비경활	진입률 a ¹⁾	진입률 b ²⁾	자영 부문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	비경활	퇴출률 계
1987	0.44	3.86	0.71	4.87	6.60	0.35	1.29	2.70	0.37	0.93	0.16	0.56	0.27	2.29
1989	0.64	5.19	0.85	5.12	6.21	0.35	1.56	3.02	0.43	1.30	0.14	0.46	0.31	2.65
1991	0.60	5.75	0.76	5.28	7.21	0.35	1.61	3.01	0.54	1.49	0.23	0.40	0.27	2.93
1993	0.52	3.14	1.08	4.48	6.45	0.47	1.16	2.06	0.47	0.47	0.16	0.46	0.33	1.89
1995	0.38	2.31	0.89	5.45	7.18	0.40	0.94	1.64	0.38	0.50	0.12	0.32	0.27	1.59
1997	0.37	2.44	0.54	3.49	4.88	0.27	0.85	1.68	0.32	0.79	0.11	0.32	0.23	1.77
1998	0.58	2.93	0.66	2.00	1.91	0.26	0.97	2.14	0.51	0.84	0.12	0.74	0.45	2.66
1999	0.26	2.15	0.72	2.16	2.77	0.28	0.82	2.03	0.35	0.50	0.08	0.48	0.41	1.84
	상용직 진입자의 진입전 상태별 분포 ³⁾							상용직 퇴출자의 퇴출후 상태별 분포 ³⁾						
'85~99 평균	11.8	53.0	6.9	5.3	12.4	10.6			19.6	40.9	7.0	19.3	13.2	100
1999	9.1	44.2	8.4	4.0	21.8	12.6			23.0	26.1	4.4	25.1	21.4	100

주 : 1) 진입률a = 상용직 신규 진입자/(생산가능인구-상용직). 2) 진입률b = 상용직 신규 진입자/상용직.

3) 행(row)의 합계가 100인.

자료 : '경활' 원자료에 기초한 '월간패널'.

7) 보다 자세한 사항은 류재우·배무기(1984) 참조.

변화하던 것이 1991~93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여 3% 아래로 떨어졌는데, 상용직으로의 진입률 변동은 주로 이같은 임시직으로부터의 진입률 변화에 크게 영향받아 왔다. 이와는 달리 실업으로부터의 진입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근래에 들어 비노동력이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실업상태가 가질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퇴출확률은 노동자가 단위기간 동안에 하나의 노동력 상태에서 빠져 나갈 확률로 정의되며, 1에서 이를 뺀 것이 '생존율(survival rate)'이 된다. 상용직에서의 '생존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착실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용직 종사자의 취업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 기간중에 급감하였다. 이는 근래의 상용직 비중의 감소가 퇴출측 행동과 보다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용직으로부터 임시직으로 퇴출하는 비율은 1991~93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이 기간은 임시직으로부터의 진입률이 크게 떨어진 기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임시직으로부터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동시에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상용직과 임시직 간의 관계에 통계수집 방법상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든 어떤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1998년의 퇴출률 급증은 실업, 임시직, 비경활로의 퇴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 중 임시직으로의 퇴출률 증가는 이미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경활'로부터 볼 때,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측면에서 상용직과 가장 가까운 노동력 상태는 역시 임시직이라 할 수 있다. 표의 하단에서 보듯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는 진입과 퇴출의 거의 반 정도가 임시직 범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이 같은 임시직과의 노동력 유동은 상대적으로 줄고 실업과의 유동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경활과의 유동에서는 진입측과 퇴출측에서 비대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비경활로부터의 진입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비경활로의 퇴출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제 KLIPS의 1~2차년도 자료와 '경활'의 '연간패널'로부터 구한 연간 이행확률을 비교해 보자. <표 5>에서 보면 '경활'에 비해 KLIPS에서는 진입률과 퇴출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그 같은 점은 비경활, 실업, 일용직으로부터의 진입률과 비경활 및 실업으로의 퇴출률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대신, KLIPS에서는 임시직과의 유동 비중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상용직으로의 신규 진입자 중 약 44%는 비경활로부터 온 것이며 실업까

〈표 5〉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연간 이행확률 (비농가, 남자)

(단위: %)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							상용직으로부터의 퇴출확률					
	자영 부문	임시직	일용직	실업	비경활	진입률 a ¹⁾	진입률 b ²⁾	자영 부문	임시직	일용직	실업	비경활	퇴출률 계
KLIPS	2.5	17.8	9.2	17.8	5.3	6.7	21.0	4.2	2.1	1.4	3.6	7.4	18.7
'경활'	3.4	14.5	4.7	10.3	2.2	5.5	12.8	3.8	4.1	0.8	2.3	3.2	14.2
	상용직 진입자의 진입전 상태별 분포 ³⁾							상용직 퇴출자의 퇴출후 상태별 분포 ³⁾					
KLIPS	9.3	9.7	5.5	31.9	43.7			22.5	11.1	7.7	19.4	39.3	100.0
'경활'	17.7	42.3	7.4	17.5	15.1			26.7	28.6	5.9	16.0	22.7	100.0

주 : KLIPS 수치는 1차년도(1998년)와 2차년도(1999년) 조사시점간의 이행에 관한 것이며, '경활'의 수치는 1998년 10월과 1999년 10월 간의 '연간패널'로부터 구한 것임.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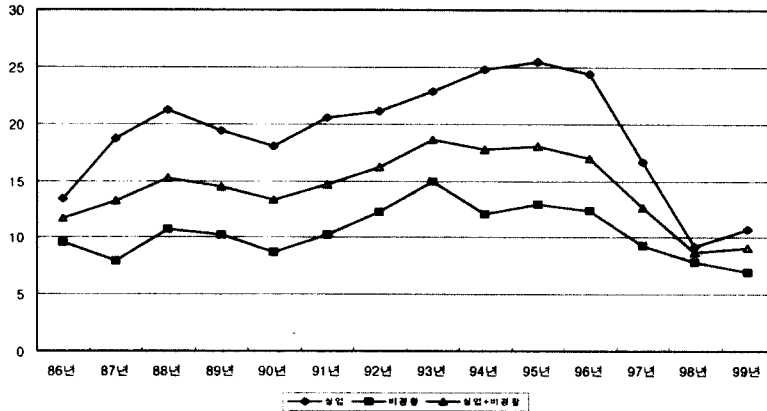
자료 : KLIPS 및 '경활' 원자료에 기초한 '연간패널'.

지 합할 경우 그 비율은 약 76%에 이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부터의 진입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활'의 42%와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표 2>에서 보았듯이 '경활'에서보다 KLIPS에서 임시(및 일용)직의 비중이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어느 쪽의 수치가 편의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경활' 자료의 편의가 더 큰 경우, '경활'에 기초한 이하의 추정치들도 편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에서는 상용직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이 주로 임시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 실업·비경활과의 사이를 오가는 '한계적 노동자'에 의한 부분이 증가하여 왔다는 점을 보았다. 이 같은 점을 [그림 2]를 통해 다시 보도록 하자. 그림에는 실업 또는 비경활에 있다가 취업한 자들 중 상용직으로 진입한 자의 비중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비경활로부터 취업한 자들의 경우는 1993년까지, 그리고 실업으로부터 취업한 자들의 경우는 1995년까지 상용직으로의 진입 비중이 꾸준히 상승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같은 조건부 진입률은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까지 급감세가 이어졌다.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있어 실업·비경활자의 취업조건부 자영업부문 진입률에는 별 다른 변동이 없었으므로(류재우·최호영, 2000), 이는 결국 최근의 취업조건부 진입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8) 물론 실업으로부터의 취업조건부 상용직 진입률의 하락은 근래에 있어서의 실업자의 급증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림 2) 비취업자의 취업 조건부 상용직 진입확률 (비농가, 남자)



자료 : '경황' 원자료에 기초한 '월간패널'.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임시·일용직이 구직자의 가장 중요한 취업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다시 상용직을 중심한 노동력의 유동에 있어서 상용직과 비취업 간의 직통로가 닫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패턴의 변화가 고용구조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력 유동의 지표들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추세 반전을 하였는데, 이는 고용관행 또는 고용구조상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게끔 한다. 이처럼 상용직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감소해 왔고 퇴출률도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상용직과 여타 노동력 상태 간의 단절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퇴출측 통로만 개방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 왔다는 점을 추론할 수가 있겠다.

2. 연령별 상용직 진입·퇴출의 패턴 및 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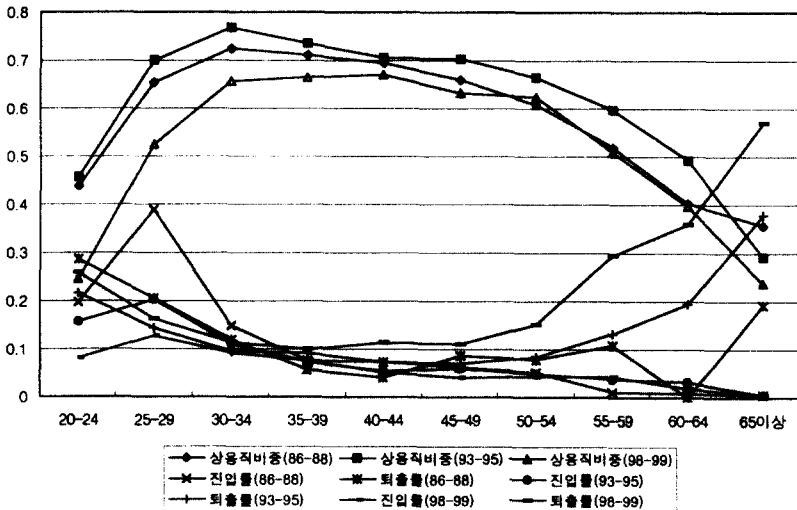
여기서는 연령집단별 진·출입 행동패턴과 상용직 비중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에는 상용직 이외의 상태(실업 및 비경황 포함)에 있던 자가 1년 후에 상용직에 있게 되는 비율(진입률), 상용직에 있던 자가 1년 후에 상용직을 벗어나 있는 비

율(퇴출률), 그리고 임금노동자 중의 상용직 비중 등이 연령별로 나타나 있다. 이들 수치는 각각 자료의 초기인 1986~88년, 상용직 비중이 정점에 있던 1993~95년, 그리고 최근의 1998~99년 등의 세 기간별 평균치이다.

먼저 진입률은 20대 후반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조 감소하는데, 시간상으로는 진입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30대 전반 이하의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일어났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반면, 퇴출률은 연령에 따라서 대략 U자형으로 변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저연령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고연령층의 퇴출률만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진·출입 행동상의 특성은 연령별 상용직 비중과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 먼저 임금노동자 중의 상용직 비중은 30대 전반에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⁹⁾ 이는 상용직으로의 순수입이 30세를 전후한 시기까지만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순수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

[그림 3] 연령별 진입률, 퇴출률 및 상용직 비중



주 :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수치는 각 해당 기간의 평균치임. 상용직 비중: 상용직/임금노동자. 진입률: 상용직 신규진입자/(생산가능인구-상용직). 퇴출률: 상용직 퇴출자/상용직. 자료: '경활' 원자료에 기초한 '연간패널'.

9) 취업자 전체 중에서의 상용직 비중의 경우에는 [그림 3]에서와는 달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50~60%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 65세 이상에서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거의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같은 차이는 상용직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임시 및 일용직으로부터는 자영업부문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간상으로 1990년대 전반과 최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했지만 연령별로 그 같은 변화의 요인은 달랐음이 나타난다. 즉 30대 이하의 상용직 비중의 감소는 주로 진입률의 감소에 의한 것인 반면, 40대 이후의 경우는 주로 퇴출률의 증가에 의하였던 것이다. 이들 두 효과 중에서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컸는데, 근래에 젊은 층의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을 띠게 된 것은 이에 기인한다.

3. 상용직으로의 '디딤돌'로서의 임시·일용직의 역할과 그 변화

상용직과 비취업 간의 노동력 유동의 통로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점, 그리고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의 가장 큰 부분은 임시직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이미 보았다. 이제 임시·일용직이 갖는 상용직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역할 및 그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자.

<표 6>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사이의 노동유동 중에서 얼마만큼이 동일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좌측을 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기업 '내부자'인가 '외부자'인가는 상용직으로 이행할 확률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반 정도가 동일 직장 내에서 움직였다는 점이다.¹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용직으로부터 임시(·일용)직으로 퇴출한 자 중 동일직장 내에서 유동한 비중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즉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에 있어서 임시·일용직은 비대칭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여타의 노동력 상태들로부터 상용직으로 옮겨갈 때에는 임시(·일용)직을 '디딤돌' 삼아 진입을 하며, 상용직에서 퇴출할 때에는 임시(·일용)직을 거치지 않고 비취업이나 자영부문으로 직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¹⁾

최근의 임시(·일용)직의 급증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너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생산성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로서

10)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동일직장 내에서의 비상용직→상용직 유동 규모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인턴사원제 때문에 실제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11) 여기서 '디딤돌(stepping stone)'이라는 용어는 단지 '통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디딤돌'을 딛고 도달한 상태에 머무르리라 기대되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즉 한 노동자가 임시직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상용직에 갔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임시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이행에 있어서 동일 직장 내 유동의 비중 (비농가 남자)

(단위: %)

	상용직으로의 진입			상용직에서의 퇴출		
	임시→상용	일용→상용	임시·일용 →상용	상용→임시	상용→일용	상용→ 임시·일용
이행확률	18.4 (1.5)	7.7 (0.8)	12.4 (2.3)	1.2	0.8	1.9
동일 직장 내 이행확률	21.8 (0.6)	6.7 (0.3)	12.6 (0.9)	0.4	0.4	0.4
동일 직장 내 이행의 비중	53.1	47.1	51.0	20.0	31.2	24.4

주 : 1) 표에서의 수치는 1차년도(1998년도)와 2차년도(1999년도) 조사시점간의 이행에 관한 것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진입자수를 상용직수로 나눈 것으로 <표 4>의 '진입률'에 해당됨.

자료 : KLIPS.

임시(·일용)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대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임시에서 상용으로 옮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그 같은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¹²⁾

<표 7>과 <표 8>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노동력의 순환적 유동의 양상에 대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조망을 제공해 준다. 먼저 <표 7>의 상단 패널은 일정기간 내에 임시·일용직 중의 얼마만큼이 상용직으로 진입하는가를 보여주는데, 현재 임시직에 있는 자로서 11개월 이내에 상용직을 '경험'하는 자의 비율은 1999년의 경우 16%에 이르고 있다. 시간상으로는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의 하단 패널은 비취업상태에 있던 자들 중 임시(·일용)직을 디딤돌 삼아 상용직으로 진입한 자들의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데, 역시 1998년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표 7>은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상용직의 '폐쇄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 같은 디딤돌 역할이 줄어들어 왔음을 제시한다.

12) 최근에는 임시·일용직은 노동자들이 그 범주에 속하면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막다른 일자리' 또는 '함정'이라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예컨대, 남재량·김태기, 2000). 이와 관련하여 류기철(2000)은 KLIPS에 기초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갖는 사람의 비율은 54.1%으로서,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 다음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가지는 비율 68.8%보다는 낮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임시직을 포함하는 비정규직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같은 수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의 차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차이는 젊은 층으로 한정할 경우 더 작아질 것이다.

<표 7> 임시·일용직으로부터의 상용직으로의 이행 (1~12월 기준: 비농가 남자)

(단위: %)

		1989	1995	1998	1999
임시·일용 → 상용	T ₁ 중 R로 진입한 비율	28.29	17.74	19.87	16.01
	D ₁ 중 R로 진입한 비율	6.25	8.05	4.94	6.06
	T ₁ 및 D ₁ 중 R로 진입한 비율	21.03	14.13	14.18	11.76
실업·비경활 →임시·일용 → 상용	U ₁ T ₂ 및 N ₁ T ₂ 중 R로 진입한 비율	26.30	14.50	21.71	8.29
	U ₁ D ₂ 및 N ₁ D ₂ 중 R로 진입한 비율	4.08	4.13	7.27	2.15
	(U ₁ , N ₁)→(T ₂ , D ₂) 중 R로 진입한 비율	9.95	9.34	14.96	4.26

주: 표에서 R, T, D는 각각 상용, 임시, 일용직을 나타내며, 하첨자는 월을 나타냄. 예컨대, 첫 행의 수치는 1월에 임시직이었던 자 중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상용직으로 이행한 자의 비율이며, 네 번째 행의 수치는 1월에 실업이나 비경활에 있다가 2월에 임시직으로 이행한 자들 중 12월까지 상용직으로 진입한 자의 비율임.

자료: '경활' 원자료에 기초한 '12개월 연속패널'.

<표 8>은 상용직에 있다가 해고 등으로 인해 다른 직장의 상용직으로 옮겨가는 자들 중에서 중간 단계로 임시·일용직을 거치는 자들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상용직에 있다가 신규로 임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17~49%가 6~8개월 이내에 다시 상용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계열상으로는 그 같은 '중간 체류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8> 노동력의 임시·일용직을 경유한 상용직으로의 유동 (1~12월 기준: 비농가 남자)

(단위: %)

		1989	1995	1998	1999
1~3월 R 중 익월에 T로 이행한 자의 비율:	①	1.20	0.45	0.91	0.58
① 중 6~8개월 이후 R로 복귀한 자의 비율:	②	49.24	26.72	32.63	16.60
1~3월 R 중 익월에 D로 이행한 자의 비율:	③	0.08	0.11	0.18	0.25
③ 중 6~8개월 이후 R로 복귀한 자의 비율:	④	41.17	26.18	21.29	19.83
1~3월 R 중 익월에 T, D로 이행한 자의 비율:	⑤	1.28	0.56	1.09	0.84
⑤ 중 6~8개월 이후 R로 복귀한 자의 비율:	⑥	48.76	26.62	30.74	17.58

주: 표에서 R, T, D는 각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나타내며, 하첨자는 월을 나타냄. 예컨대, 두 번째 행은 1~3월에 상용직이었던다가 그 다음 달에 임시직으로 옮겨간 사람 중에서 6~8개월 이후에 다시 상용직으로 복귀한 자의 비율임.

자료: '경활' 원자료에 기초한 '12개월 연속패널'.

특이한 점은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진입한 자의 비중은 물론, 실업이나 비경황에 있다가 임시직을 디딤돌로 삼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비중도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에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을 잠시 동안 거쳐 다시 상용직으로 옮기는 자의 비중도 외환위기 기간에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에 상용직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나는 <표 4>와도 일관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상용직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성

앞에서의 '이행확률'은 각 노동력 상태를 이행할 '평균' 확률이었다. 이제 이행확률과 관련한 노동자간의 이질성에 대해 살펴보자. <표 9>는 KLIPS의 1~2차년도 조사자료로부터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과 노동시장 배경 등이 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 상용직으로부터 퇴출할 확률 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첫 번째 열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크며, 연령별로는 30대 후반에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건설,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에서(제조업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으며, 직종별로는(사무직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등에서 낮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통상적인·인식과는 달리, 중규모 기업에 비해 대기업 근무자가 상용직에 있을 가능성이 작게 나타난다.

두 번째 이후의 열에는 유량자료를 사용한 회귀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먼저 둘째 열은 상용직 이외에 있던 자들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자가 상용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한 추정 결과는(연령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횡단면자료에서와 유사하며, 자영업종사자는 상용직 진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셋째 열은 비상용직 노동자가 1년 후에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무급가족 포함), 실업·비경황의 네 가지 범주로 이행할 확률에 대해 다항로짓으로 추정을 한 뒤에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식에 대한 추정 결과만을 보고한 것이다. 여기서도 결과는 앞서와 비슷하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직은 의심할 바 없이 상용직의 비

〈표 9〉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진입 및 퇴출 결정식의 추정: 비농가 남자

(괄호안은 t 값)

추정방법	상용직 결정식	상용직 진입 결정식		상용직 퇴출 결정식		
	로짓 ¹⁾	로짓 ²⁾	다항로짓 ³⁾	로짓 ⁴⁾	로짓 ⁴⁾	다항로짓 ⁵⁾
종속변수	상용(98)=1	상용(99)=1	상용(99)=1	비상용(99)=1	비상용(99)=1	임시·일용(99)=1
상수	6.84(8.4)	-5.20(-4.9)	-4.16(-3.2)	-0.32(-0.3)	0.22(0.2)	4.23(1.4)
비가구주	0.04(0.2)	0.06(0.2)	-0.27(-1.0)	0.50(2.1)	0.47(1.9)	0.61(1.2)
무배우자	-0.06(-0.4)	-0.17(-0.7)	-0.36(-1.3)	0.06(0.2)	0.06(0.2)	-0.62(-1.1)
연령	-0.08(-2.3)	0.27(6.3)	0.33(7.5)	-0.12(-2.2)	-0.11(-2.0)	-0.27(-2.3)
연령의 제곱	0.001(1.4)	-0.004(-7.1)	-0.005(-8.5)	0.002(2.9)	0.002(2.6)	0.003(2.3)
학력(고졸=0): 중졸 이하	-0.31(-2.6)	-0.45(-2.6)	-0.42(-2.3)	-0.10(-0.5)	-0.14(-0.7)	0.51(1.2)
초대졸	0.42(2.4)	0.54(2.0)	0.72(2.3)	-0.46(-1.6)	-0.49(-1.7)	-1.63(-1.6)
대졸	0.59(4.7)	0.67(3.4)	0.63(2.9)	-0.22(-1.0)	-0.15(-0.7)	-0.21(-0.3)
14세대 부모가 자영업	0.00(0.0)	0.09(1.1)	0.02(0.3)	0.02(0.3)	0.01(0.1)	-0.11(-0.5)
현 직장이 첫직장	-	-	-	-0.27(-1.4)	-0.27(-1.4)	-1.81(-2.8)
현 직장 근속년수	-	-	-	0.01(0.6)	0.01(0.9)	-0.04(-1.1)
노조 가입	-	-	-	-0.63(-3.0)	-0.63(-2.9)	-1.10(-1.9)
입금	-	-	-	-	-0.15(-0.9)	-0.47(-1.1)
기업규모(100~300인=0): 30인 이하	-0.08(-0.2)	0.10(0.1)	0.25(0.2)	0.53(2.0)	0.54(2.0)	0.77(1.0)
300인 이상	-2.46(-8.8)	-0.90(-1.4)	-1.06(-1.1)	0.28(1.1)	0.27(1.1)	0.98(1.3)
노동력상태(임시,일용=0): 자영	-	-1.78(-6.8)	-0.76(-2.4)	-	-	-
실업·비경황	-	0.04(0.2)	-1.11(-4.5)	-	-	-
광역시	0.05(1.1)	-0.05(-0.7)	-0.01(-0.2)	0.02(0.3)	0.03(0.4)	-0.13(-0.7)
산업 더미	Y	N	N	Y	Y	Y
직종 더미	Y	N	N	Y	Y	Y
R ²	0.356	0.156	0.449	0.061	0.061	0.093
χ ² (df.)	1850.8 (23)	284.6 (13)	3598.4 (39)	87.7 (24)	86.6 (25)	181.3 (78)
Log likelihood	-16770.9	-771.2	-212.0	-676.6	-672.7	-881.7
관측치 수	3,769	3,403	3,403	1,690	1,684	1,685

주 : 1) 1998년도 횡단면자료에서의 상용직 결정식.

2) 1998년 비상용(실업·비경황 포함)이 1999년에 상용으로 이행할 확률의 추정식.

3) 1998년 비상용이 1999년에 각각 네 가지 상태(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가족 포함), 실업·비경황)로 이행할 확률의 추정식 중에서 상용으로 이행할 확률식의 추정 결과.

4) 1998년 상용이 1999년에 비상용으로 이행할 확률의 추정식.

5) 1998년 상용이 1999년에 네 가지 상태로 이행할 확률의 추정식 중에서 임시·일용으로 이행할 확률의 추정 결과.

자료 : KLIPS.

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용직에서 퇴출되었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표의 4~6 열은 바로 그 같은 측면에 대한 조망을 준다. 표에서 보면 상용직 퇴출확률은 연령상으로는 30세 정도에 가장 낮아졌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조 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용직에서 퇴출할 확률이 낮다. 그러나 현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지의 여부, 현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등의 사항은 상용직에서 퇴출할 확률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30인 이하의 소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일수록 상용직에서 퇴출한 비율이 높았음이 확인된다.

근래의 상용직 감소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질문의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역선택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임금수준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임금수준은 퇴출확률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찰되지 않은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 경우 높은 임금은 낮은 퇴출률과 연관이 될 것이다. 반면, 임금이 높다는 것은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해고의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회귀식에서 1998년 당시의 임금수준이 퇴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두 효과가 상쇄작용을 한 결과일 수 있다. 임금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내생성의 문제 및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2단계 추정법도 사용하여 보았다. 이 경우 1단계에서는 경력, 경력의 제곱, 학력, 제조업 더미, 노조가입 더미 여부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이 같은 추정식에 기초하여 계산된 임금 예측치(predicted value)를 실제 임금 대신에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로짓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계수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 임금에서 임금 예측치를 빼서 얻는 임금잔차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경우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V. 상용직 비중의 추세변화 요인

1. 횡단면자료의 분석

이미 보았듯이 시계열상으로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1993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 절에서는 그 같은 추세반전이 노동력의 구성 변화, 그리고 진입 및 퇴출확률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상용직 비중의 변화에 대해 요인 분해를 한 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비율효과'는 각 임금노동자 집단의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더라도 각 집단 내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용직 비중의 변화분을 가리킨다. 또한 '구성효과'는 각각의 임금노동자 집단들에서의 상용직 비중이 불변이더라도 상용직 비중이 서로 다른 집단들간의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비중 변화의 효과이다. 취업자 비율과 구성의 동시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표에서 생략하였다.

<표 10> 상용직 비중 변화의 요인 분해

(단위: % 포인트)

	1986~93년		1993~99년		1997~98년		1998~99년	
	비율효과	구성효과	비율효과	구성효과	비율효과	구성효과	비율효과	구성효과
연령	6.9	0.6	-9.6	0.9	-0.2	0.7	-3.8	-0.2
교육	1.9	5.5	-12.3	3.9	-2.3	2.8	-3.5	-0.5
산업	9.4	-1.9	-10.5	1.7	-1.5	2.0	-3.8	-0.2
직종	3.9	3.6	-10.0	2.1	-1.0	1.5	-2.9	-1.1
연령·학력	7.5	0.0	-9.0	0.0	0.5	0.0	-4.0	0.0
연령·산업	7.5	0.0	-9.0	0.0	0.5	0.0	-4.0	0.0
연령·학력·산업	7.5	0.0	-9.0	0.0	0.5	0.0	-4.0	0.0
실제 총변화	7.5		-9.0		0.5		-4.0	

자료: '경활' 원자료의 각년도 10월분.

먼저 1986~93년 사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15세 이상의 임금노동자들을 5세 단위로 11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눈 다음 이들 집단의 구성 변화가 상용직 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첫째 행), 그 효과는 아주 작게 나타난다. 반면 무학에서부터 대졸까지 6개 집단으로 구분된 학력 집단의 구성 변화는 상용직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왔다. 상용직 비중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은바, 학력수준의 상승에 따른 고학력 집단의 비중 증가는 상용직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 온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분류 기준에 따라 산업을 9개로 나누어서 보면 산업 구성은 상용직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용직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 등의 고용 비중이 축소되고 대신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7개로 구분된 직종별 집단에 대해서 보면, 상용직 비중이 높은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의 상용직 비중이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구분법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나이, 학력, 그리고 산업으로 구분된 462개 집단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해보면 비효과는 상용직 비중 증가분의 약 60%에 달해 40% 정도에 머무는 구성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1993년 이후의 보다 최근의 경우에는 구성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의 증가만이 상용직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에 약간의 기여를 했을 뿐 여타의 기준에 의해 구분된 인구 집단의 구성 변화는 상용직 비중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있어서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각 세분된 인구 집단 내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 같은 비중 감소는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큰 폭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용직 비중 감소 현상이 경기하강에 따른 상용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감소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를 비상용직으로 바꾸게끔 하는 시장압력이 증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제시한다.

2. 유량분석: 상용직 근로자 수 변화의 요인분해

이미 언급하였듯이 임금노동자 중에서의 상용직의 비중은 1993년을 기점으로 추세 전환을 하였는데 상용직의 절대 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1995~96년경에 그 같은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각 노동력 상태간의 노동력 이행확률의 변화가 이러한

상용직 근로자의 절대 수의 변화에 얼마큼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노동력 상태를 상용(R),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S), 임시·일용(D), 실업(U), 비경활(N) 등으로 구분하고 시점 t에서의 이들 상태별 노동자의 수들을 벡터 l_t 로 표시하자. 그 다음, 각 상태간 이행확률들을 P_{ijk} ($i, j = r, s, d, u, n$)로,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진 마르코프 행렬을 P_k 로 쓰자. 그러면 $l_t = \prod_{k=0}^{t-1} P_k \cdot l_0$ 의 관계가 성립한다.

만일 모든 이행확률들이 초기값(P_0)에서 불변이고 인구의 증가나 감소도 없다면, $\bar{l}_t(P_0) = (P_0)^t l_0$ 이 성립할 것이다. 이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상용직 수를 구한 다음, 모든 이행확률이 초기 값에서 불변인 채 상용에서 임시·일용으로 퇴출할 확률(P_{rd})만 실제대로 변화했다라면 있었을 가상적인 경우의 상용직 수와의 차이를 구하면, 그것은 시점 0과 t 사이에 P_{rd} 이 변화함으로써 상용직 수의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각 상태와 상용직 간의 진입 및 퇴출확률의 변화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다.¹³⁾¹⁴⁾

<표 11> 상용직 종사자 수의 변화에 있어서 이행확률 변화의 효과: 비농가, 남자, 1987~98

(단위: 1,000명, %)

실제 변화	총효과	진입측 이행확률 변화의 효과		퇴출측 이행확률 변화의 효과		
		효과	P_{dr} 변화의 효과	P_{rd} 변화의 효과	P_{ru} 변화의 효과	
1,163	1,397 (100)	-2,118 (-152)	-1,930 (-138)	3,515 (252)	1,884 (135)	2,784 (199)

자료: '경활' 원자료로부터 구축된 '월간패널'.

<표 11>은 상용직 근로자 수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은 요인분해를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는 1987~98년 사이에 상용직 근로자가 116.3만 명이 증가했는데, 진입이행확률의 감소는 상용직의 수를 211.8만 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퇴출측 이행확률의 감소는 상용직의 수를 351.5만 명 증가시킨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행확률 변화에 의한 순증가 효과가 139.7만 명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그간의 상용직 수의 증가는 비상

13) 이 같은 요인분해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류재우·최호영(2000) 참조.

14) 이상의 이행확률 모형의 안정성 조건은 이행행렬 P_t 의 특성근들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료에서 이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

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상용직에서 퇴출할 확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각 상태별로 보면 실업 및 임시·일용 근로자의 퇴출확률 감소와 임시·일용으로부터의 진입확률 감소가 상용직 수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다.

3. 유량분석: 상용직 비율 변화에 대한 이행확률 변화의 효과

상용직 수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는 각 효과가 기준시점에서의 이행확률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상용직 비중의 변화를 진입측 이행확률의 변화에 의한 부분과 퇴출측 이행확률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노동력 상태를 상용직(R)과 비상용직(L)으로 나누고, 상용직에서 이탈할 확률을 P_{rl} , 그리고 비상용직(실업·비경활 포함)에서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을 P_{lr} 로 쓰자. 그러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상용직 참가율(s)'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s = \frac{R}{R+L} = \frac{P_{lr}}{P_{lr} + P_{rl}} \dots\dots\dots (1)$$

이제 두 시점에서의 P_{rl} 의 평균과 P_{lr} 의 평균을 각각 $\overline{P_{rl}}$ 과 $\overline{P_{lr}}$ 로 쓰면, 두 시점 간의 s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Delta s = \frac{1}{(\overline{P_{rl}} + \overline{P_{lr}})^2} (\overline{P_{rl}} \cdot \Delta P_{lr} - \overline{P_{lr}} \cdot \Delta P_{rl}) \dots\dots\dots (2)$$

위 식은 상용직 '참가율'의 변화가 상용직으로 진입할 확률의 변화에 의한 부분('진입률 효과'; 첫 번째 항)과 상용직으로부터 퇴출할 확률의 변화에 의한 부분('퇴출률 효과'; 두 번째 항)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는 이 같은 요인분해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의 수치는 가구주로서 유배우이고 시부에 거주하면서 제조업-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첫째 행에는 비교 시작 시점인 1998년의 각 집단별 실제 상용직 '참가율'도 나타나 있는데, 이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령에 대해 2년 낮은 연령에서부터 2년 높

은 연령까지의 집단에 대해 계산된 것이다. 즉 예를 들어 고졸 30세의 '참가율'의 경우 실제로는 28세 이상 32세 이하 고졸자의 '참가율'이다.

진입과 퇴출 이행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년도에 대해 앞의 <표 9>의 두번째 열과 네번째 열에서와 같은 로짓식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식에 포함된 변수는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시부거주 여부,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더미 등이었으며, 퇴출식의 경우 산업과 직종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같은 추정 결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각 집단의 이행확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같은 이행확률 추정치를 식 (2)에 대입하여 각각의 이웃하는 연도에 대해 이행확

<표 12> 이행확률 변화의 '상용직 참가율'의 변화에 대한 효과: 비농가, 남자

(단위: %포인트)

			고 졸			대 졸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상용직 '참가율' (1988년, %)	60.47	47.87	42.39	82.24	68.02	60.15
누적 변화	'88~99	실제 변화	-18.97	-7.92	-5.59	-3.46	-1.57	0.27
		진입률 효과	-21.09	-6.81	13.97	-7.31	0.26	12.95
		퇴출률 효과	8.85	5.95	11.63	3.15	0.87	1.20
	'88~95	실제 변화	-6.68	-3.63	0.40	2.97	-0.28	1.99
		진입률 효과	-27.45	-19.93	-6.21	-7.49	-4.76	4.08
		퇴출률 효과	23.14	20.85	27.09	5.82	5.27	6.85
	'95~99	실제 변화	-12.29	-4.29	-5.99	-6.44	-1.29	-1.71
		진입률 효과	6.36	13.12	20.18	0.18	5.01	8.88
		퇴출률 효과	-14.30	-14.89	-15.46	-2.66	-4.40	-5.65
시점간 변화	'88~99	실제 변화	-18.97	-7.92	-5.59	-3.46	-1.57	0.27
		진입률 효과	-20.49	-9.44	7.95	-10.13	-5.14	1.64
		퇴출률 효과	11.42	9.42	17.32	5.77	4.52	9.90
	'88~95	실제 변화	-6.68	-3.63	0.40	2.97	-0.28	1.99
		진입률 효과	-24.48	-20.37	-16.20	-8.34	-6.09	-4.03
		퇴출률 효과	22.07	21.32	31.81	6.52	6.09	12.96
	'95~99	실제 변화	-12.29	-4.29	-5.99	-6.44	-1.29	-1.71
		진입률 효과	-7.49	-0.30	5.23	-4.40	-0.82	1.46
		퇴출률 효과	-15.94	-14.08	-13.81	-4.07	-3.72	-3.47

주: 표의 수치는 '가구주-유배우자로서 시부에 거주하면서 제조업-사무직에 종사하는 자' 기준임.
 자료: '경찰' 원자료로부터 구축된 각년도 10~11월간 패널.

를 변화의 효과를 계산한 다음 각 기간별로 누적한 결과는 표의 상단 패널에 나타나 있다. 한편 그 같은 효과는 각 기간별로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의 이행확률만을 가지고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추정의 결과는 표의 하단 패널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1988~99년 기간에 대해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실제의 상용직 참가율 하락의 폭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출률의 하락이 일관되게 상용직 비중을 높여 온 반면, 진입측에서는 특히 저연령층에서의 진입확률의 감소가 상용직 비중을 크게 감소시켜 왔음이 확인된다.

이제 상용직 비중이 급락하기 시작한 시점인 1995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둘로 나눈 다음, 1988~9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역시 대개의 경우 상용직 비중 변화에 대해서 진입률의 변화는 음의 효과를 그리고 퇴출률의 변화는 양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입률 감소 현상은 저학력-저연령층일수록 강한 반면, 퇴출률 감소는 연령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경우에 퇴출률의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1995~99년 기간의 경우에는 각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누적 변화'와 '시점간 변화'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진입률은 상용직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데 반해, 퇴출률은 상용직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물론 후자의 효과가 전자를 압도한 결과 상용직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퇴출률의 증가는 대졸보다는 고졸자의 경우가 훨씬 컸으며, ('시점간 변화'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상용직 노동자 집단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핵심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바, 최근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상용직 노동을 둘러싼 노동력 유동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근래에 있어서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그 원인에 대한 조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KLIPS 와 '경활'(경제활동인구조사)인데, 상용직에 관한 통

계를 비교해 본 결과 '경활'에 근거하여 추정된 근래의 상용직 감소(또는 비정규직의 확산)의 규모는 일정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활' 자료가 이처럼 상용직 비중 수준 등에 대해 편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로 추세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상태간 유동 행태에 있어서의 변화가 종사상 지위별 노동력 구성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근래의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와 어떻게 연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행확률 모형에 입각한 분석의 결과, 1993년 이후에 상용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비취업자 또는 비상용직 노동자가 상용직 근로자화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상용직 노동자가 비상용직으로 옮겨가거나 비취업으로 퇴출하는 경향이 증가한 데 보다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비중은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폭은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그 같은 비중 감소는 저연령층에서는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이 감소하고 고연령층에서는 상용직으로부터의 퇴출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에서는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장-노년층의 경우 구조조정 주요 표적이 되면서 상용직에서의 퇴출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숙련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저기능-저숙련 직군에서 상용직의 임시·일용으로의 대체가 급속히 일어나며 '탈상용직화' 현상이 보다 빠르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에 있어서의 임시·일용직과 실업·비경활의 역할에 대해 KLIPS와 '경활'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활'에 의할 경우 상용직 신규진입자의 반 정도가 임시직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KLIPS에서는 비경활로부터의 진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경활'에 의존하여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의 패턴을 보면 상용직과 여타 노동력 상태간의 '단절' 현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점이 발견된다. 또한 실업은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디딤돌 역할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그 같은 역할이 임시직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시직으로부터 상용직으로 유동하는 노동력의 반 정도는 동일한 직장 내에서 고용상태가 향상(upgrade)된 데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임시직이 상용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통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젊은 층의 상용직 비중 저하가 상용직으로의 진입률 저하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할 때, 그 같은 점은 근래의 상용직 비중 하락 현상이 기업들이

상용/정규직 고용을 하기 전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형태로 관찰기간(probationary period)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왔다는 점과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에서는, 적어도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자 집단간 구성의 변화가 상용직 비중 변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이행확률의 변화가 상용직 비중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용직 비중의 감소는 퇴출측 이행확률의 증가에 보다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점은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용직에 집중되면서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으로 대체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 비중 변화의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같은 변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그같은 원인의 가능한 후보들로서 기업환경에 있어서의 변동성 증대, 고용관행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기본원인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해고비용이 높아지게끔 만드는 제도적인 요인이다. 예컨대, 퇴직금의 존재 등은 해고비용을 높임으로써 비정규직 고용비중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같은 제도의 완화는 비정규직/비상용직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따라서 상용직/정규직 비중의 근래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대신 정리해고제와 관련한 해고회피노력 의무화 조항이 해고비용을 증가시켜 비정규직의 확산을 촉발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효과가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1997년 이후에나 해당되며, 따라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용직 비중 변화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상용노동자의 절대 및 상대 규모가 감소하게끔 한 기본 동인 및 그 상대적 중요도 등에 대해 엄밀한 검증작업이 있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본 연구자들은 상용직 비중의 하락현상이 숙련별 수요구조의 변화, 고용관행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며, 최근의 제도의 변화, 경기악화는 그 같은 추세를 증폭시킨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근래에 확산된 비상용직/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규제나 억제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각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호책을 마련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이 임시·일용으로의 대체되는 경향은 외환위기 이전에 주로 저연령층-

하위직군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상당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젊은 층의 상용직 비중 감소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고용관행상의 변화에 의해 임시직이 상용직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로로 자리잡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가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저숙련-하위직군에 있어서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소득불균등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아울러 이들 노동자들을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평생 고용성(lifelong-employability)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류재우, 2000b).

참 고 문 헌

- 김재호·조준모.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0. 12.): 154-197.
- 김대일. 「실업장기화의 효과분석」, 배무기·조우현 편, 『한국의 노동경제』, pp33-61. 서울: 경문사, 1999.
- 남재량·김태기.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 (2000. 12.): 81-106.
- 류기철.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0. 12.): 135-153.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권 1호 (2000. 6.): 137-165.
- 류재우. 「종사상 지위간 노동력 유동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경제연구』 22권 (2000. 2.): 50-70. (a)
- _____.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교육개혁과 인적자원개발정책』, 정책기획위원회 (2000. 9.): 195-227. (b)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호 (1999. 6.): 109-140.
- 류재우·배무기. 「한국의 노동시장 플로우와 실업」, 『노동경제논집』 7권 (1984. 10.):

55-75.

박기성.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비정형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2001. 1.): 109-123.

최경수. 「경제위기 기간의 고용구조 변화」, 『노동경제논집』 22권 2호 (1999. 12.): 35-60.

한 준·장지연.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33-53.

Abraham, Katharine G. "Restructur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he Growth of Market-Mediated Work Arrangements." In *New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Abraham, Katharine G. and McKersie, Robert eds) pp.85-129. Cambridge: MIT Press. 1990.

Berman, Eli; Bound, John; and Griliches, Zvi., "Changes in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U.S. Manufacturing: Evidence from the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7 (2) (May 1994): 367-397.

Jaeger, David A. and Stevens, Ann Huff, "Is Job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Falling? Reconciling Trends in the CPS and PSI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3) (October 1999): s1-28.

abstract

Accounting for the Recent Decline in the Share of Regular Employees: A Dynamic Analysis

Jaewoo Ryoo and Jaehong Kim

This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the recent decline in the share of 'regular employees' among total employees. It finds, among other things, that the decline which began in 1993 is not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worker groups that have differing tendency to work as regular employees. Overall, the decline in the share of regular employment is mainly due to the workers' increased transition probability out of 'regular employ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younger workers for whom the decrease in the rate of entry into 'regular employment' has also been an important reason of such a decline.